

뛰어난 연비·경쾌한 주행감...6년만에 확 달라졌네

친환경 전용 SUV 기아 2세대 '신형 니로' 시승기

연비 리터당 20.8km '국내 SUV 최고'·넓어진 실내 학교 앞 전기 모드 '그린존 드라이브' 국내 첫 적용

분위기부터 달랐다. 기아의 친환경 전용 스포츠 유틸리티차(SUV) '디 올 뉴 기아 니로'는 6년 전 첫 출시 때 모습과 달리 '확연히' 예뻐졌다. 디자인만 바뀐 게 아니다. 국내 SUV 중 가장 높은 복합연비는 수석처럼 뛰어난 연비를 자랑했고, 주행감도 경쾌했다.



최근 기아의 친환경 전용 SUV '디 올 뉴 기아 니로' (이하 신형 니로)를 시승했다. 시승 차량은 니로 하이브리드 1.6 2WD DCT 시그니처 트림, 색상은 스노우화이트벨(KLG 옛지팩)이다. 시승 구간은 광주 서구 광천동 기아 오토랜드 광주에서 담양 광주호까지 왕복 40여km다.

페플라스틱 재활용 소재가 사용된 차량 천장, 벤젠·톨루엔·자일렌이 첨가되지 않은 친환경 페인트를 칠한 윈도 스위치 패널, 유칼립투스 잎에서 추출한 원료로 만들어진 인조가죽 시트는 기존 차량들과 차이가 없이 만족스러웠다.

본격적인 시승에 앞서 외관을 둘러봤다. 신형 니로는 기아의 새로운 디자인 철학인 '오펜지 유나이티드' (Opposites United·상반된 개념의 창의적 융합)와 그 속성 중 하나인 '이유있는 즐거움 경험' (Joy for Reason)이 반영된 모델이다.

한층 얇아져 슬림해진 시트와 실내공간은 훨씬 넓어졌고, 10.25인치 클러스터와 내비게이션 통합 파노라마 디스플레이로 개방감도 뛰어났다.

기아의 새로운 디자인 철학이 적용된 만큼 2016년 첫 출시됐을 당시의 1세대 니로와 느낌은 비슷하면서도 확실한 차이가 느껴졌다.

신형 니로는 전장(차량 앞뒤 길이)이 기존 대비 65mm 길어지는 등 차체가 커졌다. 운전석에 착석하면 넓어진 실내를 곧장 체감할 수 있었다. 트렁크 적재 용량은 451 l로 기존보다 15 l 더 늘어나 수납성도 개선됐다.

기아의 새로운 디자인 철학이 적용된 만큼 2016년 첫 출시됐을 당시의 1세대 니로와 느낌은 비슷하면서도 확실한 차이가 느껴졌다. 차체와 지붕을 잇는 기둥 모양의 구조인 C필러와 부메랑 모양의 리어 컴비네이션 램프(브레이크 등)를 수직으로 통합시켜 스포티하면서도 세련된 인상을 풍겼다. C필러 안 일정한 크기의 틈(에어커튼 홀)은 차체와 C필러 사이에 간격을 만들어 공기 흐름의 저항을 줄이는 방식으로 연비 향상에도 도움을 준다.

주행을 위해 시동을 켰다. 동승한 일행은 "이거 시동이 켜진 거 맞지?"라고 물었다. 그만큼 정숙하다는 얘기다.

무엇보다 기아의 새 기업 비전 '지속가능한 모빌리티 솔루션 프론티어'에 따라 실내공간 역시 친환경 소재가 대거 적용된 것이 인상적이었다.

주행감은 경쾌하다는 표현이 딱 들어맞았다. 시승 차량은 최고 출력 105ps, 최대 토크 14.7kg·m 하이브리드 엔진과 최고 출력 32kW, 최대 토크



시승 전 기아 오토랜드 광주 주차장에서 촬영한 기아의 신형 니로. 국내 SUV 중 가장 높은 복합연비를 자랑함과 동시에 스포티해진 디자인, 친환경 소재가 대거 적용된 넓은 실내가 인상적이다.

170N·m의 모터를 탑재했다. 기존 중형 SUV를 이용할 때와는 사뭇 달랐지만, 신형 니로의 운동성능 역시 부족하지 않았다. 2세대 6단 DCT를 장착해 기어변속도 부드러웠다.

특히 신형 니로의 복합연비는 l당 20.8km로 국내 SUV 중 가장 높다. 추운 날씨 탓에 히터를 강하게 켜고, 간혹 역셀을 강하게 밟으며 시속 90km 상

당을 달리는 등 속도를 냈지만 연비는 18km/l 이상을 유지하는 등 뛰어난 연비 성능을 보여줬다.

이밖에 전방 충돌방지 보조(FCA) 장치와 지능형 속도 제한 보조(ISLA) 장치 등 대거 탑재된 지능형 첨단 운전자 보조시스템으로 주행의 피로도 또한 크게 덜 수 있었다.

또 대기 환경 개선이 필요한 학교, 대형병원 등 그린존 주변도로 진입시 전기 모드 주행을 확대하는 기술인 2세대 그린존 드라이브 모드도 국내 최초로 적용됐다.

한편 신형 니로의 가격은 친환경차 세제혜택 및 개소세 3.5% 반영 기준 ▲트랜지 2660만원 ▲프레스티지 2895만원 ▲시그니처 3306만원이다.

▲시그니처 3306만원이다. /글·사진=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전기차 보조금, 자국 기업 육성에 활용해야”

중국·독일 등 정부 장려 기술 보유 자국 차량 우대 국내 기업 실익 높이고 기술 혁신 촉진정책 모색

자동차연구원, 산업동향 보고서

전기차 보조금 정책이 신산업 육성의 발판 역할을 할 수 있는 만큼 중국, 일본, 독일 등 다른 주요 국가들처럼 자국 기업에 대한 우대와 지원을 위해 전기차 보조금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리오토 등에 유리한 보조금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일본은 재난 발생시 전기차로 비상 전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외부 전력 공급 기능이 탑재된 전기차에 대해 보조금을 추가 지급하며 자국에서 생산된 전기차에 우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자동차연구원(한자연)이 21일 공개한 산업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자국 정부가 장려하는 배터리 교환 서비스(BaaS) 기술을 탑재한 차량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 가격 기준에서 예외를 적용하고 있고, 또 자국 기업이 주로 생산하는 주행거리 연장형 전기차(EREV)도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한자연에 따르면 지난해 이후 생산된 대부분의 일본산 전기차나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에는 외부 전력 공급 기능이 장착돼 있어 이러한 기능이 없는 외국산 전기차에 비해 차량 1대당 보조금 상한액이 약 20만엔가량 더 높게 책정돼 있다.

EREV는 기본적으로는 전기차지만 내연기관을 활용해 주행 가능 거리를 늘린 자동차로, 외부에서 충전이 불가능하고 엔진이 상시 작동한다는 점에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국가가 많다.

독일의 경우 자국의 완성차 기업이 내연기관차 기술에 더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고려해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 내연기관이 탑재된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에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EREV를 보조금 지급 차종에 포함시켜 EREV를 생산하고 있는 중국 전기차 기업

또 독일은 폭스바겐의 전기차 라인업인 'ID.' 시리즈가 출시된 2020년에 전기차 1대당 보조금을 최대 9000유로로 증액한 뒤 지급 기한을 2025년까지 연장하는 등 자국산 전기차 판매가 본격화된 시점에 맞춰 보조금 지급 정책을 조절하기도 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연합뉴스

쉐보레 '볼트 EUV' 이번엔 출고되나

2분기 중 고객에게 인도하기로



쉐보레는 '2022 볼트 EV'와 브랜드 최초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볼트 EUV'를 올해 2분기 중 고객에게 인도한다고 21일 밝혔다.

실내는 10.2인치 고화질 터치스크린이 탑재된 전기차 전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과 8인치 스마트 디지털 클러스터, 버튼식 기어 시프트,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등이 기본 적용됐다.

쉐보레는 지난해 8월 신형 볼트 EV와 EUV의 사전예약을 받으며 출시를 예고했지만, 배터리 제조 결함으로 인한 제너럴모터스(GM)의 볼트 EV 전 모델 리콜 결정으로 계속 인도가 미뤄져 왔다.

또 볼트 EV와 EUV에는 동급 최다 수준인 10개의 에어백과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선이탈 방지 시스템 등 14가지 안전 사양도 적용됐다.

두 모델 모두 LG에너지솔루션의 신규 배터리 모듈이 적용된 차량으로, 계약 일시와 모델에 따라 순차적으로 출고될 예정이다.

쉐보레는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으로 멈춰선 북미 공장의 재가동 일정이 결정됨에 따라 최대한 빨리 기존 계약자들에게 차량을 인도한다는 계획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신형 볼트 EV와 EUV는 150kW급 고성능 싱글 모터 전동 드라이브 유닛을 탑재해 최고출력 204마력, 최대토크 36.7kg·m의 성능을 발휘한다.

배터리 패키지가 차체 하부에 수평으로 배치된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바탕으로 설계돼 주행 안정성이 뛰어나다는 게 쉐보레의 설명이다.

이밖에 신형 배터리 모듈이 탑재된 LG에너지솔루션의 66kWh 대용량 배터리 패키지를 적용해 1회 충전 시 주행 거리가 환경부 인증 기준 볼트 EV는 414km, 볼트 EUV는 403km로 모두 400km

KT 인공지능 음성인식 솔루션, 벤츠 탄다

S 클래스·EQA 등 차종에 탑재



KT는 미국의 차량용 인공지능(AI) 음성인식 솔루션업체 세렌스와 함께 메르세데스-벤츠 차량을 위한 AI 음성인식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솔루션과 세렌스의 클라우드 플랫폼을 연계해 개발됐다. KT는 세렌스와 공동 연구개발을 지속하며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S 클래스와 EQA 등 차종에 이번 서비스는 주행 중 운전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음성기반 시스템에 연결해 안전하고 직관적으로 제공한다. 위치정보 확인과 온라인 콘텐츠 검색부터 환율, 날씨 및 시간, 위키피디아, 단위변환, 소셜챗 등 서비스가 가능하다.

KT 관계자는 "벤츠에 다양한 커넥티드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을 토대로 앞으로도 고객들이 차량 내에서 편리하게 즐길 수 있는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예를 들어 운전자가 "안녕 벤츠, 광주광역시청 경로 알려줘"라고 말하면 KT의 위치검색 기능을 통해 광주시청의 위치정보를 전달한다.

세렌스는 메르세데스-벤츠, BMW, 아우디, 현대자동차 등 전세계 2억대 이상의 자동차에 음성인식 기능을 제공하는 글로벌 기업이다.

이번 AI 음성인식 서비스는 KT의 커넥티드카

렉서스, 서울리빙디자인페어 참여 23~27일

렉서스코리아는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진행되는 '2022 서울리빙디자인페어'에 참여한다고 21일 밝혔다.

기아 EV6, 슈퍼볼 광고 선호도 1위

현대차그룹 계열 종합광고회사 이노션 월드와이드는 최근 미국프로풋볼(NFL) 챔피언 결정전 '슈퍼볼(Super Bowl) 2022'에서 공개한 기아 EV6 광고가 슈퍼볼 광고 선호도 조사에서 자동차 브랜드 1위, 전체 브랜드 4위를 각각 차지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미국 종합일간지 'USA 투데이'가 지난 14일(현지시간) 슈퍼볼 경기 중계방송에서 방영된 총 70개의 광고를 대상으로 집계한 실시간 온라인 투표 결과를 기반으로 한 것이다.

르는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

이노션이 제작한 60초 분량의 기아 광고 '로보 도그'(Robo Dog)는 경기 3쿼터 종료 후 공개됐다. 이 광고에선 기아의 첫 전용 전기차 EV6의 전원공급 기능(V2L)을 통해 로봇 강아지 '스팟'(spot)이 배터리를 충전하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담았다.

이노션 관계자는 "올해 슈퍼볼 광고 선호도 조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이노션의 글로벌 크리에이티브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며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콘텐츠와 완성도 높은 캠페인을 꾸준히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2010년 국내 광고회사 가운데 최초로 슈퍼볼 광고 제작을 시작한 이노션은 2012년 슈퍼볼 광고 선호도 조사에서 7위를 차지한 이래 매해 톱10에 오